

20장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립바

1. 유대인의 왕 아그립바의 출생과 등장 배경 : 황제 글라우디오와 헤롯 아그립바는 같은 해에 출생하였습니다. 아그립바의 아버지 아리스토틀루스가 주전 7년에 처형당하고 나서 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어머니 버니케는 글라우디오의 어머니인 안토니아와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와 헤롯 아그립바는 동갑내기 사이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서로 간에 잘 알고 지냈습니다. 가이오가 살해된 이후에 글라우디오가 권좌에 오른 후에, 그는 가장 먼저 아그립바의 왕국에 유대땅을 더하여 주었고, 집정관의 지위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그가 가이오 황제가 살해당했을 당시에, 글라우디오에게 큰 도움이 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그립바가 유대 땅을 로마에게 유익이 되도록 유대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그립바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례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헤롯 대왕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종교적 관례들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미쉬나에 나오는 한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신명기 31:10 이하에 규정되기를, 매 7년 끝 해에, 곧 정기 면제년의 가을 초막절에 중앙 성소에 모인 백성들에게 신명기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여 그들로 듣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후41년 10월에 아그립바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신17:15)”를 서서 낭독하다가, 그의 혈통이 유대 혈통이 아닌 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그립바 왕의 이러한 유대인의 종교적 감정에 대한 그의 각별한 경의로 인해 그를 매우 좋아했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그의 금사슬을 성전에 헌납하였고, 서원의 기간이 만료되어 감사제를 드려야 했던 나실인들의 비용을 부담해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의 행동들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유대 바깥쪽의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 관례들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치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통치 방식이 아그립바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기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3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세 명의 대제사장들을 사면시키고, 세 명을 임명시켰다.

2.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그립바 : 신약 성경에서 아그립바에 대한 언급은 그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적의에 찬 정책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12:1 이하에서 열두 사도들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도 사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고, 그의 동료 사도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묵인한데에서,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존경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변하여 태도를 바꾸어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아그립바와 마르수스의 갈등 : 한편 주후42년경 아그립바의 북쪽 국경에서 멀지 않은 도라라는 베니게(Phoenician) 항구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그 도시의 회당 안에 글라우디오의 형상을 세우고 만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그립바는 페트로니우스에게 항의하였고, 페트로니우스는 이에 유대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였던 칙령에 준하여 범법자들을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페트로니우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마르수스와 아그립바의 관계는 그다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마르수스는 아그립바가 성전 지역의 북쪽 벧세다 주위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북쪽까지 쌓기 시작한 '제3의 성벽'을, 예루살렘 백성들 간에 지나친 독립심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아그립바에게 성벽 건축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 한번은 아그립바가 공통의 관심사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디베랴에 소집한 분봉왕들을 본 마르수스가 디베랴에 도착하여 참석한 왕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 아그립바의 죽음 : 아그립바의 죽음은 누가와 요세푸스 저자에 의해서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는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하연인 듯한 자리에서 백성들의 그를 칭송하는 신적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충양돌기로 인하여 발생한 복막염으로 대개 진단되는데 그는 그 일이 있는 후 5일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